

성령의 세례, 인치심, 내주(內住)하심

인류가 범죄한 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삼위일체 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인류 가운데서 구원하실 대상들과 구원하실 방법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그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죄인들을 실제로 구원해내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죄인들의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물론, 그 일은 죄인들을 불러 중생시키는 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성화시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일 전체를 포함한다. 성경은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몇 가지 말로 표현한다.

성령 세례

첫째로, 성경은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 세례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13에서 “우리가 유대인이 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했다.

세례(洗禮)는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죄인들을 불러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씻음을 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重生)의 사건과 같다. 중생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죄씻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 마음이 새로워

지는 것이다. 죄씻음을 의미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성령의 활동으로 중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편입된다.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속에 성령님을 모시게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표현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게 된다. 그때 성령께서는 믿는 자 속에 들어 오신다.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옛 죄악들을 깨끗케 하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며 복이다

성령의 인치심

둘째로, 성경은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13-14에서 “그[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그를 혹은 그것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救贖)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

인치심은 보증을 의미한다. 우리는 집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우리의 도장을 찍는다. 나의 도장은 그 문서를 내가 인정한다는 표시이다. 나의 도장은 그 문서에 대한 나의 보증이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것

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이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인치심이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인가!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누추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내주(內住)하심

셋째로, 성경은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령의 내주(內住)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요한복음 14:16-17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위로자,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다른 보혜사께서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 그것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다른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후에 영원히 믿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9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모신 자이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증거라고 말했다. 고린도전서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15-16,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들 속에 오시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구약성경 에스겔 36:24-28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영]=[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시기를,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죄악을 씻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이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 예언의 성취이다.

선지자 요엘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욘 2:28-29)고 예언하였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에서 인용한 구약성경의 말씀이기도 했다(행 2:16-21).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 그는 우리 속에 위로자와 돕는 자로 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동락(同樂)한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특권과 복이다.

성령의 세례와 인치심과 내주하심은 같은 사건이다. 우리가 중생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옛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가장 귀한 사건이다. 이것은 구원받을 때 일어난다.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특권이며 복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우리 속에 오셔서 인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동락하는 백성이 된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성령의 세례와 인치심과 내주(內住)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자.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고 또 이 특권을 아는 자 되기를 바란다.